10월 구역모임

전도하기

❦ 1. 환영 Welcome

◎ 인사와 교제
◎ 감사와 나눔

❦ 2. 찬양 Worship

◎ 온 세상 위하여 (찬505장)
◎ 빛의 사자들이여 (찬502장)
◎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500장)

❦ 3. 말씀 Word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1) 복음을 전하는 이유

1-1)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겔3:17~18)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대에 올라 새벽이 오는 것과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살펴 백성에게 알려주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일의 파수꾼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지금 그대로 가면 망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 알려 주시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는 가던 대로 가다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은 파수꾼인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섬뜩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악인의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기 이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젖어 있으면 결국은 사망과 멸망뿐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고 싶으면 전도해라!"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 복음에 빚진 자이기에

신약성경에서는 바울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 (롬1:14~15)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죄인에게 갈 화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기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전도자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걸맞게 실력이 차고 넘쳤습니다.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으며, 당시의 율법학자 중에서는 최고의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세계와 헬라인의 세계를 함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후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순간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차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여태 알지 못했던 약한 부분이 자기 속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형편없고 망가진 인간이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삼ㅇ의 몸에서 건녀 내랴!"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못난 자를 부르셨습니까?"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에게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구나. 내 속에 있는 깊은 교만과 이기심, 헛된 명예욕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가지 못했던 나를 붙드셔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매우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살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 전도하는 자의 두 가지 마음가짐

2-1)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복음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과 만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전도법은《사영리》를 이용한 전도입니다. 저도 처음에《사영리》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들은 복음은 그저 딱딱한 교리에 불과했고, 제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진정 생명의 종교, 생명의 신앙이라면 당신 속에 지금 역사하고, 경험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삶이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황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가운데서도 제 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제게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랑한 한 친구가 찾아와 가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시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경험한 생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이며,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믿는 것과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을 전달해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느니 제가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도 문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구원의 문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곤고함과 마음의 공허함을 깊이 연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앎으로써 변하게 된 것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진솔하고 소박하게 나누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서부터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2-2)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전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자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도를 통해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전도해야 하는 첫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자신과 교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조심히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전도란 철저하게 이타적인 마음과 자기희생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동기(개인의 영성훈련)로 전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이라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일부분을 상대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교리가 아닌 삶의 증거를 갖고, 인간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1) 전도하는 이유 두 가지를 다시 요약해 보십시오.

(2) 전도하는 마음가짐 두 가지를 배우고 난뒤 느껴지는 점이 있으면 나눠 보세요.

(3) 그 외 이번 공과를 통해 주신 교훈, 은혜, 깨우침, 혹은 도전이 있으면 나눠 보시고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

❦ 4. 중보기도 Work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교회와 나라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